

## 명량해전 후 일본군의 공세와 연해지역 의병항전

- 최대성의 의병활동과 보성 안치전투 사례를 중심으로 -

趙 潑 來\*

1. 머 리 말
2. 명량해전 직후 일본군의 보복공세와 호남지방의 실정
3. 1598년 흥양 보성지역의 전세와 의병의 동향
4. 최대성의 의병활동과 안치전공의 향방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명량해전은 조선수군이 칠천량해전에서 전패한 다음 2개월 이후 뜻밖에 대승을 거둠으로써 전세를 반전시킨 해전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칠천량에서의 충격적인 패배 직후, 재기불능으로 간주되었던 조선

수군이 매우 열세한 전력으로 일본수군을 일거에 격퇴시킨 해전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명량대첩의 전과와 의의만을 강조해온 나머지, 이 해전의 반작용으로 가해진 일본군의 반격과 보복공세가 엄청났던 사실은 관심밖에 두고 있었다. 또한 명량대첩으로 인해 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강조된 상황에서, 그 밑의 장수나 군관·의병장의 활동과 전공이 묻혀버리고 마는 역사서술을 되풀이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종래의 임진왜란사 연구에서 전혀 돌아보지 못한 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명량대첩의 결과가 가져온 반작용으로 전라도 해안지역에 일본군의 분풀이 공세가 집중되었고, 따라서 이 지역은 명량해전 이후 일본군의 침략전쟁이 한층 격화된 양상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1598년 3월 이후 일본수군의 공격이 치성했던 전라좌수영 관내 보성에서 있었던 최대성의 의병활동사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곳에서 벌어진 의병전투는 침략군의 점령지역 내부에서 전개된 극한상황의 항전이었다. 정유년 9월부터 순천에 왜교성을 쌓고 현지에 주둔한 소서행장군이 종전시까지 관내 전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성의 의병활동은 관군이 현지에 있으면서도 의병을 구원하지 않았던 안치전투에 대한 사례이지만,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외롭게 싸우다 순절하고도 어긋난 전쟁기록으로 인해 의병장의 전공이 말살된 문제에 대한 것으로 안치전투의 전말을 검토함으로써 종전기 항보의병전의 일면과 함께 억울하게 묻혀버린 의병장의 전공회복을 위해 계속된 재지유림과 후손의 소청운동에 대해서도 함께 서술할 것이다.

위에서 논급한 것과 같이, 이제 임진왜란사 연구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산도해전이나 명량해전과 같은 대규모 전투사 중심의 연구나 이순신의 전쟁능력을 강조하는 고정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이를테면 戰局의 추이에 따라 지방사회의 동태를 주의깊게 검토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전개된 의병전 사례분석의 심도를 한층 깊이있게 하는 것도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

\* 순천대 교수

진왜란사 연구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왜곡되었거나 억울하게 문혀버린 전쟁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 2. 명량해전 직후 일본군의 보복공세와 호남 지방의 실정

정유재란시 일본군의 재침작전은 무엇보다도 전라도를 빠짐없이 공략하라는 豊臣秀吉의 작전명령대로 이행되었다. 1597년 8월 13일부터 전군이 총력전을 펼친 남원성전투에서 일본군은 4일만에 성을 함락시킨 다음 곧바로 전주성까지 장악하였다. 그 후 8월 하순부터 9월 초에 이르기까지 전라도 전역을 점령함으로써 재침작전의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과 다름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9월 중순 명량해전이 벌어졌다. 정유년 9월 16일 단 하루의 1회전으로 끝난 명량해전의 결과는, 藤堂高虎(토오도오 타카도라)·來島通總(구루시마 미치후사) 등이 이끄는 일본수군이 완패한 뒤 정유재란의 전세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했다. 그러나 명량에서 대패한 일본수군은 곧바로 대선단을 이끌고 전라우수영 관내에 다시 쳐들어왔다. 명량에서의 패전을 설욕하기 위해 이순신의 조선선단을 추격하는 한편, 우수영으로부터 영광 법성포 앞바다에 이르는 해역을 쓸고 다니면서 연안지역 일대의 촌락을 분탕질하였다.

한편 수군통제사 이순신은 명량해전이 끝난 당일에 13척의 수군선단을 이끌고 북상하여 영광 칠산해와 법성포를 거쳐 남하한 뒤 10월 29일 보화도(현재 고하도)에 진을 쳤다. 그는 이듬해 2월 17일 강진 고금도로 진영을 옮길 때까지 그곳에서 겨울을 보냈다. 다만 명량해전이 끝난 당일 현지에서 철수한 뒤 20여 일 만인 10월 9일, 우수영에 돌아왔다가 적정을 살핀

다음, 해남일대에 주둔한 침략군의 만행이 자심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현지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그런데 명량해전 직후 약 일주일이 지난 뒤, 우수영에서 가까운 무안현의 落頭란 부두의 광경을 묘사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무수한 적선들이 항구에 가득차 있어 홍백기가 햇빛에 번쩍거리는데 아국 남녀들이 서로 뒤섞여 해변 양쪽에 쌓인 시체들로 산을 이루듯 한 가운데 울부짖는 곡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바닷물도 오염하는 듯 했다”<sup>1)</sup>라고 하였으니, 그 참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무렵 전라도를 장악한 일본군은 각처에 군사를 주둔시켜 도내 전역을 점령한 상태였다. 9월 초부터 小西行長은 순천에 왜교성을 쌓아서 주둔한 뒤 종전기까지 동부해안지역 일대를 점령하였으며, 북부의 금구·김제지역에는 鍋島直茂(나베시마 나오시게), 고부·나주지역에는 長曾我部元親(조오 소카베 모토치카), 해남지역에는 島津忠豊(시마즈 타다토요), 강진지역에는 鍋島勝茂(나베시마 가츠시게)의 군사들이 각각 주둔하여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다. 특히 일본군의 8번째 가운데 제3·제4번째에 각각 소속해 있었던 島津忠豊과 鍋島直茂(나베시마 나오시게)의 군사들은 금구·태인을 거쳐 장성으로 내려온 뒤 순창-담양-광주-창평-옥과-동북-능주-화순 등 열읍을 휩쓸어 점령하였고, 곡성에는 要時羅軍이 주둔하며 사방에 복병을 두어 현지 주민들을 유인하였다.<sup>2)</sup>

그 해 10월 초 비변사가 정충신을 파견하여 호남지방의 적정을 살피게 하였는데, 남원·전주지역보다는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도의 적세가 보다 치성했음을 보고하였다.<sup>3)</sup> 이 무렵 나주에서 가까운 무안·영암·강진·해남 등 우수영에서 가까운 해안지역의 적세가 더욱 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1) “二十四日 至務安縣一海曲 名曰落頭 賊船數千艘充滿海港 紅白旗照耀天日 我國男女大半相雜 兩邊積屍狼藉如山 哭聲徹天海潮嗚咽”(『睡隱集』 권4, 「看羊錄」(涉亂事績)).

2) 이형석, 『임진전란사』(壬辰戰亂史編纂委員會, 1974) 중권, 987쪽.

3) 『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정묘.

명량패전의 보복을 위한 칙락이 수록 양방으로 집중된 이 지역의 전쟁피해는 9월 하순 이후부터 10월 하순 사이에 더욱 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진지역 주둔군 장수였던 나베시마는 나이 18세의 악명높은 청년장수로서 그의 부친 鍋島直茂와 함께 전라도 공략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명량해전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군이 전라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보인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조선인이라면 닥치는 대로 죽인 다음 코를 베어 본국의 秀吉에게 바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히데요시의 명에 따른 것으로서<sup>4)</sup> 참전장수들의 전공평가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했다. 그것을 바친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전공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었으므로 부녀자로부터 어린애에 이르기까지 실전에 참가한 군사들이 아닌 일반백성들의 것까지 무차별하게 베어서 바쳤다.<sup>5)</sup>

명량해전 이후 호남지방에서 자행된 것 가운데 기록으로 남은 예들을 보면, 鍋島勝茂가 10월 1일 금구 김제일대에서 취한 鼻數가 3,369개로 나타나 있으며, 吉川廣家(요시가와 히로이에)의 경우에는 9월 21일 진원에서 취한 것이 870개, 9월 26일 영광·진원일대에서 취한 것은 무려 1만 40개에 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6)</sup> 해남에서는 島津忠恒이 9월 25일에 참살한 것이 자못 많았으며, 10월 10일에는 비수 53개로 기록되었고, 같은 해남에서 島津義弘은 10월 2일에 討捕한 비수가 다수였고, 3일에도 비수가

4) 조경남이 기록하기를, “정유년 재침시에 秀吉이 휘하 장수들에게 명령하기를, ‘해마다 군사를 보내어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죽여 빈땅을 만든 연후에 일본 서도 사람들을 이주시킬 것이니, 10년을 이렇게만 한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단 사람이 귀는 돌이고 코는 하나뿐이니 코를 베어 한 사람 죽인 몫으로 표시하여 바치고, 각기 코를 한 되씩 채운 뒤에야 생포하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 쳐들어와서는 사람만 보면 죽이든 안 죽이든 간에 문득 코부터 베었으므로 그 뒤 수십 년간에 이 나라에 코없는 사람들을 매우 많이 볼 수 있었다”(『난중잡록』 3, 정유년 7월 기사 말미의 註記)라고 한 것이 그것이었다.

5) 北島万次, 『朝鮮日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東京 株式會社そしえて, 1982), 308쪽.

6) 北島万次, 위의 책, 305쪽.

수다하였으며, 9일에는 의병 수십 인을 討取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7)</sup> 나주지역에 주둔한 바 있었던 長曾我部元親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인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 지역에서 6천 6인의 코를 베었는데 이것을 소금에 절여 통에 담아 본국에 수송하였으며, 한 통에 1천 개씩을 담아 모두 6통을 보냈다는 것이다.<sup>8)</sup>

일본군의 만행이 극도에 이른 상황에서 항보의병의 항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병력동원이 거의 불가능했던 실정에서 소규모의 의병집단이 대부분이었지만, 9월 하순부터 10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강진·해남·영암지역 각처에서는 의병의 활동이 그치지 않았다. 9월 25일을 전후하여, 영암에서 강진으로 통하던 밤재에서는 전몽성·김덕란·서희서 등 70여 명의 의병이 매복에 의한 기습공격으로 鍋島勝茂 휘하의 일군을 격퇴하는 전투가 벌어졌다. 이 밤재싸움으로 인해 過島軍의 강진점령을 지연시킨 의병군은 다시 영암 해안포에 상륙한 일본수군을 유점중에서 요격, 사력전을 다하였으나 전몽성·김덕란 등 의병지도층 대부분이 전사하는 비극을 맞기도 하였다.<sup>9)</sup>

10월 초에 있었던 강진 병치전투는 尹綸과 紳 형제와 해남윤씨가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城山義陣이 혈전을 치른 의병항전으로 유명하다.<sup>10)</sup> 이 전투와 관련하여 현재 해남군 옥천면 대교들에는 ‘萬義塚’으로 명명된 대형 고분들이 남아있는데, 병치혈전에서 순절한 의병들의 원혼이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다.<sup>11)</sup> 그리고 강진만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廉傑의 의병활동 또한 이 무렵이었다. 강진읍내의 구십포 해안전투와 대구면 정수사전투

7) 琴乘洞, 『秀吉の耳塚築造の意圖とその思想的系譜』(金洪圭編, 『秀吉・耳塚・四百年』, 東京: 雄山閣出版株式會社, 1998), 71쪽.

8) 北島萬次, 위의 책 303쪽.

9) 『김덕란 의병장 순절록』(1991, 탐진향토문화연구회 편), 『金公倡義錄...』(徐希恕撰).

10) 『海南尹氏忠烈錄』(1763, 尹茲東書) 및 『尹綸(外)傳』(1808, 尹奎白撰, 1926년 『화암사지』 수록).

11) 최근에 이루어진 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봉분의 상층부 토층성분의 형성시점이 정유제란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07년 동신대학교 박물관, 『해남 옥천성산 만의총 시굴조사보고서』, 17쪽).

등이 모두 연결의 항보의병에 의한 매복전·유격전이었고,<sup>12)</sup> 그 대부분은 해안지역에 쳐들어온 일본수군과의 접전이였다.

이때 각지에 주둔한 일본군이 의병활동을 탄압하고 현지의 주민들을 지배·통제할 수법은 매우 악랄하고 주도면밀하였다. 해남·강진지역에 주둔한 島津軍과 鍋島軍은 주민들에게 포고하는 방문을 붙여서 포섭·회유와 공갈·협박을 겸행하였다. 향읍에 遷住하면 생업을 보장하겠다는 전제하에 조선인 관리나 장병들을 색출하여 誅戮할 것, 그 처자와 부하들도 모두 살해할 것, 관인들의 가택은 불을 질러 없앨 것이며, 누구든지 관인들이 숨어 있는 곳만을 알려주는 자에게도 포상하겠다는 것이었다.<sup>13)</sup> 더 나아가서 의병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소위 '上官狩'(의병장 사냥)란 비인도적인 용어까지 쓰고 있었다. 일본측 기록으로 보면, 역시 해남지역에서 정유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자행된 사례들이었다. 산속이나 해안에 인접한 섬들을 수색하여 때로는 의병지도자와 병졸을 포함하여 수십 인을 討捕하기도 하고, 또는 노의병장을 討取한 것 외에 또 다른 의병장을 생포했다고 기록하거나, 10월 2일과 3일에는 사냥에서 討捕한 鼻數가 수다하였다는 기록까지 남겨 두었다.<sup>14)</sup>

현지를 장악한 일본군의 만행은 조선인 상호 간에 서로 고발·수색·방화·살해케 하여 포상을 장려하는 등 동족분열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병의 가족들까지 처단할 것을 권장하였던 것이다. 침략군이 획책한 수법은 실제 효과를 거두어 여기저기에서 부역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유년 11월 전라우수사 이시언이 조정에 올린 글에서, “해남·강진·장흥·보성·무안 등의 고을은 백성들이 적에게 붙어 사족의 피난처를 일일이 가르쳐 주어서 많이 살육되었다. 해남의 老職鄉吏 宋元鳳과 假屬書吏 金信雄 등은 혹은 죄수라느니 혹은 별감이라느니 하면서 우리나라

12) 『退隱堂實記』 권1, 「행록」.

13) 北道萬次,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1990, 東京 校倉書房), 263쪽.

14) 北道萬次, 『朝鮮日記・高麗日記』, 313~314쪽.

라 사람들을 제멋대로 살육하였다”<sup>15)</sup>라고 한 것은 당시의 실정을 잘 말해 준다. 지적된 고을들이 모두 우수영에서 가까운 해안지역이었으며, 특히 명량해전 이후 일본군의 보복공격이 집중되어 전쟁피해가 가장 컸던 해남지방에서 그러한 현상이 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당시의 호남지방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선조의 명을 받고 호남지방을 돌아본 뒤 현지의 실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 부제학 申湜의 증언을 인용해본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전라도는 병화가 더욱 혹심했던 탓으로 들판이 폐허가 되어 사람 사는 흔적이 없고 곡식은 들판에 가득해도 수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간히 살아남은 백성들이 흠집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적극적으로 살아보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곡식을 가져다가 근근히 입에 풀칠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적에게 잡혀 머리를 깎였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로 또한 喪服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상심되고 참담스러움을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sup>16)</sup>

### 3. 1598년 홍양 보성지역의 전세와 의병의 동향

명량해전 이후 전라우수영 관내의 해남·강진·영암지역 일대를 분탕질하던 일본군의 대부분은 정유년 11월 이후 현지에서 철수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의하면 11월 20일, 장흥지역에서 일본군과의 접전이 있었던 사실과 그에 대한 승첩장계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sup>17)</sup> 이것은 그 무렵 장흥 회령진 大興 근교에서 벌어진 강진 의병장 廉

15) 『선조실록』 권94, 30년 11월 기해.

16) 『선조실록』 권96, 31년 정월 정미.

傑의 의병작전으로 추측되는 바, 엽걸은 11월 18일 수군통제사로부터 의병장의 직첩을 받은 직후 그곳에서 아우 廉瑞와 함께 일본군을 격퇴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sup>18)</sup> 따라서 島津忠豊과 鍋島勝武 등이 이끈 육상군은 내륙으로 북상하여 남원방면으로 옮겨갔지만, 명량해전에 참전했던 藤堂高慮(토오도오 타카도라) 휘하의 일부 해상군은 가까운 해안지역에 잔류하였다가 장흥·보성해역을 거쳐 전라좌수영 관내인 낙안·순천지역에 이르러 합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약 1개월 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었던 『선조실록』의 정유년 12월 기사에서, 전라도 관찰사 黃愼의 장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현지 실정을 파악할 수 있다.

본도의 적세가 점차 철수하여 물러가는 듯하지만 장흥과 보성의 적은 낙안의 적진에 합세하고, 순천과 홍양의 적도 군사를 나누어 낙안에 목책을 쌓고 집을 지으면서 날마다 곡식을 수확하여 오래 머물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그 형세가 스스로 물러갈 리는 없을 듯합니다. 삼가 듣건대 대군이 남하하여 모두 영남으로 향한다 하고 또 본도의 병사와 방어사에게 군병을 이끌고 대군을 따라 전진하여 합세해 적을 섬멸할 것을 명하였다고 합니다. 도내의 연해지역이 온통 적의 소굴이 되어 있는데, 명군이 와서 토벌하지는 않고 본도의 장수들마저 영남으로 옮겨간다면 적은 반드시 우리의 허실을 엿보아 뒤를 추격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장 魏都(한성)로 달려갈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다시 십분 헤아려 조처하여 후회가 없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sup>19)</sup>

위의 기사대로 정유년 겨울에 들어오면서, 우수영 관내에서 철수한 일본측의 해상군이 전라좌수영 관내의 해안지역으로 모여들어 이 지역의 공격

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군의 움직임에 위기의식을 느낀 조정에서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였다. 하나는 선조로 하여금 특별히 현지에 근신을 파견하여 전라도 관찰사와 병사 및 방어사에게 선유, 도내의 精兵을 모아 요해처를 방어케 하는 한편 현지에 파견된 명군과 犄角之勢를 이루어 적을 섬멸케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의병장들을 고무시켜 저지당하거나 동요되어 일을 그르침이 없게 하고, 소재에 따라 군병을 모으고 군량을 모아 서로 협력하여 대처함으로써 기필코 적을 소탕하게 한다는 것이었다.<sup>20)</sup>

이에 따라 곧 바로 부제학 申湜을 전라도에 급파하여 도내의 실정을 살피고 관찰사와 병사·방어사 등과 함께 신속한 방어대책을 강구케 하였다. 그 뒤 전라도에서 돌아온 신식이 선조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 병사 이광악의 매복군이 2백여 명인데 현재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겨우 3백 명이며, 방어사 元愼의 매복군 역시 2백여 명에 인솔군이 겨우 2백여 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관찰사 황신은 수하에 거느린 군사가 전혀 없는데 別將이라고 부르는 具德齡·宋德駟 등이 이끄는 군사가 혹자는 2백 명, 혹자는 30~40명을 거느리고서 적이 있는 근처를 왕래하며 매복하고 있는 형편이라 하였다. 그리고 도내 각처 의병군의 경우에 혹자는 70여 명을, 혹자는 20~30명을 거느리고서 각 고을에 흩어져 매복하고 있는 실정임을 전하였다.<sup>21)</sup>

일도의 관군으로서 병사·방어사 등이 거느린 병력이 겨우 수백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과 의병의 병력 또한 의병장 단위별 군사가 수십 명으로부터 1백을 넘기지 못한 실정이었다는 것, 이것은 도내 전역이 일본군의 지배·감시하에 놓여 있어 군사행동이 거의 불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해남·강진의 예에서 보았듯이 일본군의 무차별한 약탈과 살육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족 상호 간의 고발·구금·살육이 강요되는 실정에서 병력동원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침략군이 점령지의 주민들을 포로로

17) 『난중일기』 정유 11월 22일과 27일 기사.

18) 엽걸, 『退隱堂實記』 권1, 「행록」.

19) 『선조실록』 권95, 30년 12월 병인.

20) 『선조실록』 권95, 30년 12월 임신.

21) 위의 책, 31년 1월 정미.

억류함으로써 일체의 활동을 통제해버린 것도 그 한 요인이었는데, 실제로 小西行長軍이 주둔해 있던 순천 왜교성의 경우, 무수한 조선인 포로들이 가족단위로 억류, 대규모 포로수용소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sup>22)</sup>

그러나 일본군의 무자비한 공격과 만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적과 싸우는 것 뿐이었다. 앞에서 본대로 비록 수십 명에 불과한 의병군이라 할지라도 현자인 스스로 의병궐기를 촉발시키는 것, 그밖에는 또 다른 방법도 전략도 없었다. 이때 의병궐기를 촉발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가 바로 국가가 의병장의 직첩을 발급·수여하는 것이었다. 의병활동에 앞장선 인물에게 의병장의 권위를 정책적으로 보장하여 의병활동을 적극 권장하려는 정책이었다.

명량해전 이후 1597년 11월 경에 와서부터 시작된 이 의병장 직첩발급의 예는 다양한 칭호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었다. 대체로 의병장이란 칭호가 쓰여졌지만, 창의별장·별장·自募將·募義將·매복장·향병장 등 다양한 호칭이 함께 쓰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선조의 위임을 받은 도원수·통제사·관찰사 등에 의해 발급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수령에게도 그와 같은 권한이 주어졌던 것 같다. 정유년 11월 순천부사 金彦恭이 전 훈련원 첨정 朴以良에게 의병장의 직임을 준 것이 그 예이다.<sup>23)</sup>

명량해전 이후 전라도에서 이루어진 의병장 임명사례는 현재 그 실증문서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sup>24)</sup> 당시의 실정에서 이

22) 당시 전라병사 이광악이 조정에 알린 다음과 같은 왜교성의 실태보고를 통하여 그 실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의병장 林權의 馳報에 의하면, 曳橋에서 포로가 된 鄭成丘이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말하기를, ‘포로가 된 사람들이 요즈음 모두 나오려고 한다. … 朴壽榮이라는 자는 나올 뜻이 상당히 있는데 가족이 무척 많으므로 그믐밤이 되기를 기다려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하였다(『선조실록』 권103, 31년 8월 무오).

23) 『선조실록』 권94, 30년 11월 을묘의 기사에 “순천부사 김언공은 본부에 사는 훈련원 첨정 박이량이 처자가 적중에서 피살되었는데, 그 울분을 견디지 못하여 군사를 모아 적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하였으므로 박이량을 장수로 정할 것을 허락했는데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24) 이 문서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된 ‘이순신 差帖文書’로서 현재 전남 고흥

와 같은 정책적 노력은 의병활동을 촉발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소규모의 병력으로도 각처에서 봉기한 향보의병의 유격전·매복전에 의해 일본군의 침략공세를 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598년에 들어와서 전라좌수영 관내의 연해지역에 일본군의 침공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조선수군은 그해 2월 17일 목포 고태도로부터 강진 古今島로 군영을 이동하였다. 부대이동의 목적은 명의 도독 陳璘이 이끄는 수군과의 연합전선 구축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다 넓은 영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였지만, 좌수영 관내에 집중된 일본군의 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기도 하였다. 고금도에 옮겨온 직후 선조에게 올린 통제사 이순신의 다음과 같은 서장이 그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소서행장은 예교에 주둔하고 있으며 2월 13일에는 宇喜多秀家가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같은 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군은 멀리 나주 경내의 寶花島에 있으므로 낙안과 홍양 등의 해상에 출입하는 왜적이 마음 놓고 마구 돌아다녀 매우 통분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잔잔해지니 이는 바로 흉적들이 발동할 때이므로 2월 16일에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보화도에서 바다로 나아가 17일에 강진 경내의 고금도로 진을 옮겼습니다.<sup>25)</sup>

이때, 막 전라우수사로 기용된 安衛가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 고금도로 수군진을 옮겨 왔는데, 그가 올린 계본에도 역시 “해로의 적세가 홍양의 이서지역에는 적이 왕래하지 않고 있지만 … 순천 예교에 적도들이 점점 몰려 들어와 군세를 키우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있다”고 하였으니,<sup>26)</sup> 1598

군 두원면 고령신씨 종가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명량해전 직후인 1597년 12월 14일 목포 고태도에서 수군통제사 이순신이 홍양의 의병장 申君安에게 보낸 差帖이었다. 그 대체적인 내용은 첫째 연해지역 各官 및 의병에 대한 지휘통솔권이 조정으로부터 수군통제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 둘째 신군안이 보고한 의병활동의 전과를 치하한다는 것, 셋째 의병장에 差定하였으니 더욱더 분발하여 싸우되 특히 군율을 엄격히 하라는 것 등을 명기하고 있었다. ※ 원문은 본고의 부록 참조.

25) 『선조실록』 권98, 31년 3월 계묘.

년에 들어와 순천 왜교성을 중심으로 한 좌수영 관내에 일본군의 공격력이 집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왜교성의 병력도 1597년 9월의 설진 당시 약 7천 정도에 그쳤던 것이 1년이 지난 뒤 1만 5천에 이르렀을 만큼 크게 늘어나 있었다.<sup>27)</sup>

왜교성에 병력을 증강시킨 일본군의 전략은 수군과의 연계하에 해륙 양면에서 전라좌수영 전역을 공략, 전라좌도 연해지역 전체를 유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즉 명량해전 직후엔 우수영 일대를 짓밟아 유린했었다면, 이제는 임란 초기부터 조선수군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던 전라좌수영의 병참기지를 풍신수길의 작전지시대로 남김없이 초토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좌수영 관내에서도 왜교성과 至近 거리에 있었던 순천·광양지역과 홍양·낙안·보성지역과는 군사지리적으로 당시 큰 차이가 있었다. 순천과 광양의 경우에는 왜교성의 군사력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에, 홍양지역은 왜교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거의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사방이 해상공격에 노출된 지역이었다.<sup>28)</sup> 게다가 홍양반도의 좌우 해역이 보성과 낙안(현재 보성군 벌교읍) 경내로 이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어느 한 지역이 해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세 고을이 함께 전쟁상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라좌수영 관내의 이와 같은 지리적 환경은 일본군의 해상공격을 용이하게 했는데, 주로 홍양반도에 상륙한 일본수군은 홍양·낙안·보성지역 각 처를 유린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598년 이 세 지역에서 펼쳐진 일본군의 침략공세와 현지의 실상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6) 위의 책, 31년 3월 계묘.

27) 위의 책, 31년 9월 을사.

28) 홍양의 읍지에는 이곳의 군사지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호남의 연해지역은 군사적으로 위험한 곳인데 홍양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湖南沿海爲武蔽 而高興其最者也)”라고 하였고, 또 “이곳의 4면이 다 바다이므로 일본과 바로 통하는 곳이다(縣之四面皆海 直通日本諸國)”라고 한 것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해준다(『신증홍양지』(1758), 한국지리지총서 읍지 4, 아세아문화사, 『記文』).

1598년 3월 이후부터 7월 사이에 이 지역에 쳐들어온 일본군의 침략상황을 우선 <표 1>를 통하여 살펴보자.

<표 1>의 내용이 당시 이 지역에 쳐들어온 일본군의 내침상황 전부로 볼 수는 없겠다.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사료가 남아 있지 못한 실정에서, 몇 가지 한정된 기록을 토대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1>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자세히 보면 1598년 3월 중순 이후 수개월 동안 홍양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 해안지역엔 일본수군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이 그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 가운데 참전장수로 홍양현감이 5회 이상 나타나는 것과 자료의 전거에 『일용집』, 「과왜보첩장」이 자주 나오는 까닭은 당시의 홍양현감 崔希亮이 수군통제사에게 그때의 전투상황을 보고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양현감의 첩보 7건 가운데 참전장수로 매복장·별장·‘군공송대립’ 등이 5회에 걸쳐 함께 기록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의병활동과 연관된 전투결과이기 때문이다. 3월 18일 이전부터 일본군의 공격이 있던 후 약 1주간 계속된 전투상황은 침략지점·작전지역·참전장수·연속된 상황 등으로 보아 침략군이 동일한 일본수군 선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적세의 규모가 어떠하였는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전후의 과정으로 보아 18일 得糧島에 상륙한 적선 5척이 그 전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륙지점이 보성 경내의 득량도인 것이나, 보성으로 통하는 姑島로부터<sup>29)</sup> 침략, 또는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음 장의 보성 안치전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같은 시기에 보성지역 또한 일본군의 공격이 있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29) 홍양현으로부터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이 도서에는 나루가 있어 바로 보성으로 통하는 곳이였다(『新增興陽誌』, 『도서』).

<표 1> 1598년 일본수군의 홍양·보성지역 침략상황

침략 시기 (적세)	침략 지점 (작전 지역)	참전 장수 (전과)	비 고 (전거)
3.18 이전. (3.20 첩보) (?)	홍양 고도(홍양의 양강 및 침산)	매복장 宋廷麒 <sup>30)</sup> 등(적 병 3급참-양강, 적병 30 여 급참, 생급 1, 군수물 노획-침산)	(최희량, 『逸翁集』 권1, 「破倭報捷狀」)
3.18 (3.21 첩보) (적선 5척)	득량도→고도(홍양 양강, 대강일대)	홍양현감·매복장 송정기 (적병 3급참-양강, 35급 참, 생급1-대강)	(위와 같음)
3.22 이전. (3.22 첩보) (?)	홍양 고도	홍양현감·매복장 ? (적병 31급참, 생급1)	(위와 같음)
3.23 (3.25 첩보) (?)	(홍양 침산포)	‘軍功宋大立’ (적병 1급참, 생급1, 군기 및 군수물노획)	(위와 같음)
4.8 (?)	(홍양 망저포, 침산)	창의별장 송대립, 모의장 최대성, 김덕방, 전방삭 등 (?)	창의별장 송대립 전사 (『여산송씨세덕록』)
4.12·13 (4.14 첩보) (적선 12척, 적병 4백여)	(홍양현 성남 3, 4리)	홍양현감 의 ? (적병 3급참)	(『일웅집』, 파왜보첩장 )
4.18 이전 (4.18 첩보) (?)	?	홍양현감 (적급 ? 상 ; 통제사)	(위와 같음)
5.25 (?)	홍양(홍양 관내)	?	전라병사 이광약 치계 (『선조실록』 31년 7월 기축)
6.5 (적병 4백여)	? (낙안, 홍양, 보성)	?	영남 사천, 島津義弘軍 급습(『난중잡록』 3, 무술 6월 5일)
6.6 (?)	홍양(홍양, 보성, 낙안지역)	모의장 최대성, 전방삭, 황원복·보성 방수장 정 희 등 참전	6.8 안치혈전, 최대성 전 사. 인명 3백여 피랍(『선 조실록』 31년 7월 기축)
7.5 (7.12 첩보) (?)	홍양 녹도(홍양)	홍양현감·별장 宋球 <sup>31)</sup> (?)	(『일웅집』, 파왜보첩장 )
7.9 (7.12 첩보) (?)	홍양 남당포(홍양)	? (적병 2급참+2급참, 군 기노획)	(위와 같음)
7.18 (적선 1백여 척)	홍양 녹도(7.24, 홍양 절이도 전투)	녹도만호 송여중(적선 6 척 당파, 적병 70여급참)	(『이충무공전서』 권9, 「행록」 1, 『선조실록』 31 년 8월 병인)

4월 8일의 홍양 望渚浦와 침산에서 벌어진 전투는 홍양현감의 첩보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예이다. 倡義別將 송대립과 募義將 최대성의 의병활동 관계기록<sup>32)</sup> 및 홍양과 보성의 읍지류 기록에 빠짐없이 기록된 의병전투 사례였다. 이 침산전투에는 송대립·최대성 외에도 홍양출신의 김덕방·낙안출신의 전방삭·보성출신의 황원복 등이 함께 참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거론하게 될 것이다.

4월 12일부터 18일 이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전투는 역시 홍양현감이 수군통제사에게 알린 첩보로서 홍양현 중심지에서 벌어진 전투로 보이지만, 현감 외의 참전장수와 구체적인 전과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4월 12일, 적선 12척이 홍양읍성 가까운 해안지역에 상륙한 이후 4백여 명의 적병이 수일간 인근지역을 공격하면서 이어진 점전사례였던 것 같다.

5월 25일 기사는 전라병사 李光岳이 조정에 馳啓한 내용으로 6월 6일의 침략사례로 계속된 일본군 내침사건이었다. 적세의 규모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처음에 홍양반도에 상륙한 적이 낙안·보성까지 공격하여 10여 일이 넘게 세 고을을 휩쓸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료는 보성 안치전투에 대한 서술에서 직접 인용하려고 한다. 이 무렵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 사이, 홍양 보성지역에 적의 계획적인 대규모 공세가 있었던 사실은 <표 1>의 6월 5일 사례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 사천에 주둔해 있던 島津義弘軍의 일부가 전라좌수영 관내까지 깊숙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主攻軍의 지원세력으로 가세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사전에 이 지역의 초토화작전을 기도했던 일본군의 전략이었다.

7월 중의 전투상황은, 침략지점과 전투지역이 모두 홍양의 녹도를 중심

30) 『신증홍양지』(1758)의 「무과」·「仕宦」 인물에 그 이름이 함께 보이며, 급제한 후 萬戶를 지낸 인물로 확인되나 『선무원종공신록권』에서는 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다.

31) 위의 책, 「무과」·「사환」 인물에 그 이름이 모두 보이고, 급제 후 判官을 지낸 인물로 기록되었으며 『선무원종공신록권』에 3등공신으로 책록되었음이 확인된다.

32) 송대립의 의병활동 사적은 『宋氏忠孝錄』(1758, 宋廷岳 편)에, 최대성의 활동과 추승사적에 대하여는 『彰節錄』(1772, 崔得基 발)에 기록되어 있다.



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낙안·보성지역까지 침공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 왜교성전투와 종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때의 일본수군은 고금도에 주둔한 조·명 연합수군의 동진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서 대규모의 선단으로 녹도 근해에 포진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과정에서 7월 5일과 9일, 홍양현감과 별장 송구의 합동작전으로 두 차례의 전과를 거둔 것은 국지적인 조우전이거나 매복전에 의한 전투사례였을 것으로 보인다. 7월 24일에 벌어진 折爾島戰鬪는 녹도만호 송여종의 전공이 높이 평가된 승전사례이지만, 당시의 군사력은 고금도에 주둔해 있던 통제사 휘하의 조선수군이였다.

지금까지 <표 1>을 통하여 대체로 살펴본 것은 1598년 홍양해역을 통하여 홍양·낙안·보성지역에 쳐들어온 일본수군의 침략상황과 그에 대응한 전투상황이었다. 당시 이로 인한 현지의 전쟁피해가 어떠하였을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 실상을 서술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표에서 보여준 3월과 6월 중의 사례와 관련인물들의 활동상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이다.

## 4. 최대성의 의병활동과 안치전공의 향방

### (1) 향보의 의병활동과 안치전투의 전개

임진왜란 초 전라좌수군이 영남해역에 처음 출전하였을 때 관내의 수군을 陣法體制에 따라 편성하였는데, 방담첨사 李純信을 中衛將으로 하여 전·후·좌·우·중부장과 좌·우척후장 등 13개 部署將 중심의 지휘체계를 갖추었다. 이때 전라좌수사 이순신 휘하에 자원중군했던 보성출신의 崔大晟(1553~1598)이 悍後將에 임명되어 최초의 해전에 임하였다. 그는 좌수영

에서 출진한 직후, 5월 7일 옥포해전에서 일본군의 대선 한 척을 撞破焚滅시킨 전과를 기록하였다.<sup>33)</sup> 최대성은 고려 말의 학자이자 대문호였던 崔瀞(1287~1340)의 8대손으로서 당시 나이 40세였다. 그는 전라좌수영의 營軍官 자격으로 한후장에 기용되었지만, 1585년 무과에 급제한 이후 관직에 나간 적이 없었다. 즉 당시 최대성은 無官 급제출신으로 참전하였으므로<sup>34)</sup> 의병장의 성격을 띤 장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군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조선전기의 군관이란 『경국대전』의 규정대로 무과 급제자 및 별시위·갑사 등 양반출신의 下番中인 군사 가운데서 鎭將이 병조에 추천, 병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임명되었는데 임기가 1년인 한시적인 무관직이었다.<sup>35)</sup> 그러나 임진왜란시엔 이 규정과 관계없이 주로 무과출신 가운데서 도원수나 순찰사, 병·수사 등이 임의로 선발하여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자원하여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고 각종 군무를 찬획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임기가 없는 것은 물론, 관직을 제수받거나 정규 보직에 임용되지 않는 한, 엄밀한 의미의 관인신분은 아니었다. 즉 지방수령이나 만호·권관 등의 진장 신분과는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대성은 전라좌수영의 군관 자격으로 최초의 해전에 참전하여 군공을 세웠지만 그 후에는 이순신의 장계 어디에서도 그의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 옥포해전 이후에는 실전의 해상전투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계와는 달리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1595년 5월 이후부터 1597년 8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최대성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1595~1596년 사이 3건의 관련 기사를 보면,

33) 『이충무공전서』 권2, 「부원경상도장」 및 「옥포파왜병장」.

34)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위의 「부원경상도장」에서 「悍後將 營軍官 及第 崔大晟」이라 하였고, 또 「옥포파왜병장」에서 역시 「悍後將 臣軍官 及第 崔大晟 倭大船一隻…撞破焚滅」이라 명시하였다.

35) 『경국대전』 권0, 병전, 「군관」.

당시 그는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 한산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라좌수영 본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군관 신분으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6)</sup> 본영에서 한산도에 들어올 때마다 그와 동행했던 李忠一·申景潢·朴自邦·尹德種 등이 모두 당시 전라좌수영의 군관들이었으며, 그들이 가끔 한산도에 들어와 전라좌수사 겸 3도수군통제사를 만났던 것은 본영의 군무와 관련된 업무보고, 또는 통제사의 명을 받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때 이순신의 아들 회·면이나 완·봉·해 등의 조카들과 함께 행동했던 것은 당시 이순신의 자당이 본영에서 가까운 곰내(熊川, 현 여주시 웅천동 송현마을)에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곳에 머무는 예가 많았고, 따라서 본영 군관들과의 관계도 밀접하였을 것이다.

옥포해전 이후 최대성이 실전에 참가하지 않고 본영의 군관으로 남아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옥포해전의 마무리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還陣한 후에 주장 이순신의 명에 의해 본영에 남게 된 것이 그 하나이다.<sup>37)</sup> 또 하나는 부친 僉正公의 신병이 깊어져 귀가한 것과, 그해 9월 24일 부친상을 당한 것들이 모두 그를 후방에 남게 했던 것이다. 그 후 起復從軍하여 좌수영의 군관으로 있던 최대성에게 1594년 6월 종5품의 훈련원 판관 직첩이 내려졌고, 이듬해 1595년 2월에는 정3품 당하관의 訓練院正으로 승진되었다.<sup>38)</sup> 임진년 이후의 그의 군공이 평가된 결과였다.

36) 1595년 5월 5일 기사에 “체찰사 종사관 柳拱辰이 들어올 때 이충일·최대성·신경황 등이 같이 들어왔다”하였고, 1596년 정월 23일에는 “밤에 薊과 堯 그리고 최대성·申汝潤·朴自邦이 본영으로부터 왔는데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는 편지와 함께 여러 종들이 모두 함께 왔다”라고 하였다. 같은 해 8월 20일 기사 역시, “아침 늦게 蕃·菱·薺·薊이 최대성·尹德種·鄭愼 등과 함께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순신의 子姪들을 제외한 인물들은 다른 기사에서도 가끔 보이는 이름들인데 이들 모두가 군관들이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37)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으로서 “入巨濟島 搜討登陸之賊 連日交戰 斬獲無數 被重傷而還陣 治蘇纒起 主將李公見公 有輕賊之勇 恐有危境 令參謀從事 巡官探審賊勢 共圖良策 公恪勤於職”(『경주최씨세덕록』 권2, 『경주최씨오충사적』(최대성))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순신이 그에게 “적을 가볍게 보는 氣勇이 있어 危境에 빠질까 두렵다”라고 했던 것이 주목된다.

1597년 2월, 수군통제사 이순신이 관직을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 원군이 들어왔을 때, 본영에서 한산도를 오고 가며 영군관의 직책을 수행했었던 인사들 가운데 수영을 떠나 귀향한 예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최대성 역시 향리 보성에 돌아온 다음, 독자적인 의병활동에 착수하여 募義將의 기치를 세웠다.<sup>39)</sup> 그해 8월에 이순신이 수군통제사에 복귀하여 전라도 해안지역에 당도하였을 때, 보성 박실마을에서 최대성이 송희립과 함께 그를 만난 것이 8월 11일이었다.<sup>40)</sup> 그때 이순신을 따랐던 휘하의 군관들이 우수영쪽으로 동행하지 않은 것은 전라좌수영 관내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며, 최대성의 의병활동에 관한 논의도 그날 함께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9월 초부터 소서행장이 좌수영 관내의 순천 왜교성에 진을 치기 시작하였을 무렵, 일본수군은 칠천량해전의 여세를 몰아 전라우수영 해역을 향하여 직진하였다. 그런데 당시 칠천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거나, 아직 살아남은 전라좌수영 출신의 군관들은 거의 명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다. 즉 홍양출신의 송대립·신군안·김봉만 등과 보성·낙안출신의 최대성·전방삭 등이 모두 그들이었다. 이들은 명량해전에 참전하기보다는 출신지역의 향리 보전을 위한 해상의병의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제 앞 절의 <표 1>에서 본 일본수군의 홍양·보성지역 침략상황과 관련, 1598년 최대성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논급할 차례이다. <표 1>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1598년 3월 중 적선 10척이 보성 曳津에 침범하였을 때 최대성이 송대립·전방삭 등과 함께 적을 물리쳤다는 기록을 보면,<sup>41)</sup> 이들의

38) 위의 책, 을미년 기사.

39) “丁酉二月 … 亦憤李公之被讒 乃還鄉而募聚義旅數千 建旗號曰 募義將軍 設陣待變”(위의 책, 정유년 기사).

40) 『난중일기』 정유 8월 11일.

41) 『송씨충효록』 송대립 「행장」(梁居安 찬) 및 『경주최씨세덕록』, 『경주최씨오충사적』(최대성). 다만 위의 두 기록이 모두 무술년의 사실을 정유년의 것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는 점과, 적세를 나타낸 부분에 있어서 두 기록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의병활동은 인접지역을 왕래하면서 상호 간에 펼쳐진 합동작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월의 보성전투에서부터 4월 8일 침산전에서 송대립이 전사하기까지 최대성·전방삭<sup>42)</sup>·김덕방<sup>43)</sup>·황원복<sup>44)</sup> 등이 모두 일군을 이루어 합동작전을 펼친 것 같다.<sup>45)</sup> 그리고 6월의 안치싸움이 있기 전, 3월에 이미 보성 해안지역에는 일본군의 來侵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모의장 최대성의 의병활동은 정유년 8월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격적인 전투는 1598년 3월 일본군이 보성 曳津에<sup>46)</sup> 상륙한 뒤부터가 아닌가 한다. 뒤에서 보게 될 「안치싸움 전투상황도」에서 확인하겠지만, 보성을 공략하기 위해 예진에 상륙한 침략군과 모의장의 의병군이 접전한 최초의 지점이 죽전들이었고,<sup>47)</sup> 6월에 이루어진 두 번째의 회전이 바로 안치

죽 전자의 기록에서는 '적선 30여 척' 또는 '왜선 수십 척'으로 기술한 반면에 후자에서는 '왜선 10척'이라 한 것에 차이가 있다.

- 42) 낙안출신으로서 『호남절의록』 권3, 「忠武李公舜臣同殉諸公」에 그의 사적이 실려 있으며, 『선무원종공신록권』에는 副正 신분으로 2등공신에 책록되었음이 확인된다.
- 43) 『신증홍양지』(1758)의 「사환」·「무과」 인물에 그 이름이 보이며, 급제 후 部將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선무원종공신록권』에서는 그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다. 『호남절의록』 권3, 「충무이공순신동순제공」에 홍양출신으로 그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 44) 『신증산양지』(1741) 「무과」 인물에 그 이름이 보이며, 『호남절의록』 권3, 「忠武李公舜臣參佐諸公」에 보성출신으로 그 사적이 실려 있으나, 『선무원종공신록권』에서는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 45) 3월 보성전투에서는 “黃元復 全邦朔 俱起助力 宋大立 金德邦 率兵以來 共破賊徒 於竹田之野”[『경주최씨오충사적』, 「최대성」]이라고 하였고, 4월 침산전투시의 관련사실은 「모의장군최공사적」(주 38) 『창절록』 소수)과 송대립의 「행장」(주 38)의 「송씨충효록」 소수)에서 최대성·전방삭·김덕방 등이 송대립과 함께 싸웠다고 하였으며, 『천안전씨세보』(『천안전씨세보』 권2, 「判官公五世孫縣監公諱潤富派」)에서도 역시 全方朔이 최대성·송대립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고 했다.
- 46) 현재 예진이란 지명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일제 강점기에 간척지개발로 인해 육지가 되어 버린 현 득량면 예당리 자리에 있었던 포구가 분명하다. 이곳은 정유재란 이후 '예진'·'왜진'·'왜진포' 등으로 불리웠던 곳인데, 1674년 磨川石橋가 세워지고 난 뒤에는 '曳橋' 또는 '倭橋'로도 불리진 것 같다. 1741년의 『신증산양지』, 「산천」에서, “倭津浦는 郡東二十五里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 후 정조 때에는 당시의 행정구역상 道林面 내의 '禮津村'(『호구총수』 권6, 전라도 보성)이란 지명이었다가 1914년 이후 禮堂里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들에서 벌어진 안치전투였다고 본다. 그리고 모의장의 전투는 최대성의 군사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질이 함께한 일가의 의병전쟁이었다. 두 아들 彦立과 厚立뿐만 아니라 사노 豆里同·甲戌 형제까지 함께 싸웠기 때문이다. 일가의 의병활동은 4월 8일에 있었던 홍양 침산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이때는 그의 아우 大冕과 종제 大英, 그리고 차자 厚立 등이 참전하였다가 종제 대영이 전사하였다.<sup>48)</sup>

침산전투에서 전사한 창의별장 송대립의 시신을 거두어 그의 아우에게 인도한 뒤, 최대성의 의병활동은 낙안과 순천 관내의 해안지역에서 계속되었다. 4월 8일 침산전 이후 5월 하순 사이의 작전기간 중 순천만 巨次浦에서 이루어진 접전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즉 “草川浦로부터 화포에 이르는 해안지역에 적선 10여 척이 나타난 후 거차포에 상륙하여 마음대로 노략질하니, 그가 의병을 이끌고 추격한 끝에 적이 산중턱에 결진한 것을 확인한 다음, 적진을 포위하여 급습을 가해 이를 물리쳤다”<sup>49)</sup>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 후 5월 25일부터 홍양 경내에 상륙한 일본군이 약 2주간에 걸쳐 낙안·보성지역 일대를 휩쓸었을 때, 그 사이 6월 5일에는 경상도 사천의 島津義弘(시마즈 요시히로)의 군사까지 합세하여<sup>50)</sup> 이 지역에 총공세를 가하였다. 이 무렵에 이루어진 최대성 최후의 의병항전이 곧 보성의 안치싸움이였다. 먼저 전투가 벌어진 경위를 살펴본 다음, 관찬기록으로 전하는 당시의 객관적인 실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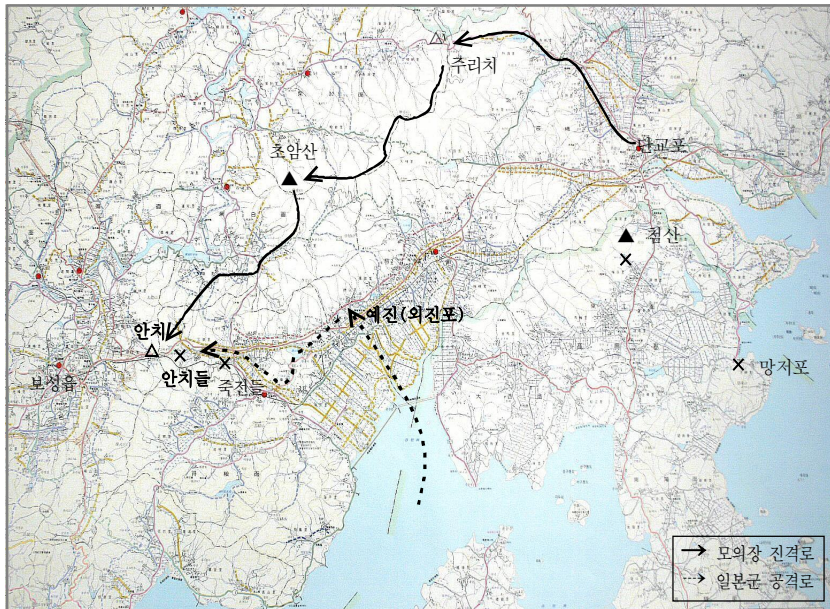
보성 안치를 향해 진군하기 직전, 최대성의 의병군은 위에서 본대로 순

- 47) “三月倭船十隻 來泊於本郡曳津 下陸 … 共破賊徒於竹田之野”(『경주최씨오충사적』, 최대성 기사).
- 48) 위와 같음.
- 49) 위의 기사에 이어서 “自草川浦至花浦 賊船十餘隻 自鉅次浦下陸驅掠 公引兵逐之 賊結陣山腰 公使將卒 回擁急屠滅之”(위와 같음) 라고 하였다.
- 50) “사천의 왜적 4백여 명이 수로를 따라 전라도에 이르러 혹은 낙안으로, 혹은 홍양과 보성으로 쳐들어가 내지까지 침범하니, 다시 모여들었던 백성들이 모두 달아나 봉괴되었다”(조경남, 「난중잡록」 3, 무술년 6월 5일)라는 것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천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왜교성이 가까운 弧頭浦로부터 화포·거차포를 거쳐 낙안 벌교포에 이르렀을 때, 본진의 守將 鄭繪로부터 “왜선 10여 척이 이곳 曳津에 쳐들어왔다”는 급보에 접한 것이다.<sup>51)</sup> 여기에서 ‘本陣’의 주장 정회란 다음의 인용문에 나오는 방수장인데, 모의장 최대성과 합세하여 의병활동을 펼쳤던 인물로서 당시 보성읍성의 守城將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통하여 여기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최대성군의 의병본진이 그의 향리인 보성군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안치싸움의 전투상황도를 보면서 전투의 전말을 살펴보자.

[그림 1] 안치싸움 전투상황도(1598년 6월 8일)



51) “六月 自弧頭浦過倉津 到花浦及鋸次浦探奇 到伐橋浦 本陣守將鄭繪馳報 倭船十餘隻來泊曳津云云”(『경주최씨오충사적』 최대성 기사).

벌교포에서 해안지역을 피하여 산길을 택한 의병은 住離峙를 넘어 초암산 밑에 당도하였다. 여기에서 적정을 살핀 다음 안치를 향하여 진격하여 산정에 진을 치니, 예진에 상륙했던 일본군이 이미 안치들에 들어와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매우 치성하였다. 이때 모의장 최대성이 사노 두리동에게 출진을 명하여 적진에 도전케 하였으나 적이 응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음날 6월 초 8일, 의병군의 장졸들이 적진을 포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sup>52)</sup>

이렇게 시작된 안치전투의 경위와 그 전황에 대하여 기록한 사료의 일부를 인용해 본다.

본군의 방수장 정회로부터 적선이 보성 曳橋에 내박하였다는 급보를 받고서 산길로 주리치를 넘어서 현지에 이르니 적이 상륙하여 안치들에 진을 치고 있었다. 정회와 황원복으로 하여금 앞뒤에서 밀어붙여 적을 치게 하고, 장자 彦立에게는 사노 豆里洞을 이끌고 좌우에서 협격하게 하였으며, 전방 삭과 차자 厚立에게는 적이 상륙한 뱃길을 차단하게 하였다. 드디어 矢丸을 퍼부어 적을 추격, 五豚峙에 이르렀을 때 잠복해 있던 적들이 갑자기 공격해 옴으로써 중과부적으로 ... 마침내 飛丸에 쓰러지니 ... 이 날이 6월 8일이었다. 두리동·갑술 등이 큰소리로 왜치며 돌진, 칼을 휘둘러 적을 공격하였으나 끝내 기진하여 공(모의장)의 시신 곁에서 함께 전사하였다. ... 이 사실이 교전일기에<sup>53)</sup> 기록되어 있어 뚜렷한 증거가 될 수 있다.<sup>54)</sup>

52) “公自山路 越住離峙 到草巖山下 探賊勢 至雁峙山頂結陣 賊入屯雁峙之野 其勢熾張 公與諸將約束 命豆里洞出陣挑戰 賊不出抗”(위와 같음).

53) 현재 최대성의 의병활동과 관련하여 ‘교전일기’란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1648년 안방준이 중심이 되어 올린 상서에서부터 “當時交戰日記 事蹟昭然”(『창절록』, 安牛山上書)이라 했던 이 ‘교전일기’는 아마 당시 최대성과 의병활동을 함께 한 인물이나 두 아들 중, 누군가에 의한 기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문중기록 가운데, 본고에서 거듭 인용한 『경주최씨오충사적』의 최대성 기록이 바로 ‘교전일기’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것은 최대성과 두 아들 언립·후립, 그리고 병자호란 때 안방준과 함께 의병운동에 참여했던 최대성의 두 손자 崗과 峴 등의 사적을 筆寫 상태로 정리하여 1936년에 편찬된 『경주최씨세덕록』 안에 끼워놓은 기록이다. 그 중 최

위의 글은 1652년 문희순을 중심으로 한 재지유림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상서문의 일부이다.<sup>55)</sup> 이것으로 볼 때 안치전투는 의병이 먼저 안치 정상에 진을 친 다음, 위에서 환히 내려다 보이는 들판에 주둔한 적진을 확인한 후 기습공격을 감행한 전투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지는 최대성의 본가가 위치한 沙谷村과 인접한 지역이었으므로 군사지리적으로는 의병에게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병력과 화력의 우열이 현격한 백병전의 결과는 의병전의 최후를 예고한 셈이었다. 당시 관군이 가까운 곳에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장의 의병군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료를 자세히 보자.

홍양지역에 적선이 쳐들어와 5월 25일에 육지에 상륙하여 마음대로 노략질하였으며, 6월 초 6일에는 내지까지 깊숙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초 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소식이 알려져 여러 장수들이 미처 도별할 수 없게 하였고, 3백여 명의 인명과 가축들이 다 잡혀갔음에도 이를 숨겨 보고하지 않은 현감 崔希亮의 죄는 군법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보성군수 全伯玉은 8일의 전투시에 군사를 거느리고도 구원하지 않았으니, 비록 적을 斬殺한 작은 공이 있다고 해도 그 잘못을 속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낙안군수 方德龍은 비록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침의 사실을 알리지는 못했으나, 명의 장수 李千總과 함세하여 적을 쳐서 그로 하여금 공을 세우게 하였으니, 두 수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sup>56)</sup>

대성의 활동사적을 임진년에서부터 정유년까지 대체로 연월일 순서대로 기술하여 12자×82행으로 정리한 비교적 소소한 기록이다. 내용 가운데 무술년의 사실 전부를 정유년으로 기록한 것 외엔 당시의 지명이나 관련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교전일기'와 관계있는 기록이라 생각된다.

54) 문희순, 『太古亭集』 권1, 「上方伯書」.

55) 이것은 당시 문희순 등 보성의 유림 49인이 최대성의 의병활동과 총절에 대한 旌褒之擧를 전라도 관찰사에게 청원한 상서인데, 실문서는 남아 있지 않고 상서문만 문희순의 『태고정집』(한국역대문집총서 2803, 경인문화사, 1998)에 轉載되어 있다.

56) 『선조실록』 권102, 31년 7월 기축.

1598년 6월 전라병사 李光岳이 홍양·보성·낙안지역의 당시 상황을 선조께 보고했던 것이 바로 윗글이다. 이 사료 하나만으로도 당시 이 지역에 일본군의 침략공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충분히 말해준다. 그 중에서도 6월 8일에 있었던 보성의 안치전투는 어떤 상황에서 전개된 의병항전이었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 전투를 전후한 시기에 보성의 관군 역시 관내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치르고 있었으며, 또한 현지에서 일정한 전과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군은 6월 8일 안치에서 의병의 혈전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여 참전을 기피하였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적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병의 처절한 사력전은 전개되었고, 이것이 孤立無援한 안치들에서 펼쳐진 최대성군의 마지막 의병항전이었다. 주장은 물론 가장 용맹을 떨쳤던 가노 두리동과 그의 아우 갑술이 모두 함께 전사하였다. 모의장 최대성이 의병활동을 개시한 후 대소 약 20여 회 전투를 치르면서 적병 백여 급을 참수한<sup>57)</sup> 끝에 최후를 마쳤으니, 그의 나이 46세 때였다. 방수장 정희의 경우에는 안치싸움 직후 亭子川 橋上에서 벌어진 다른 전투에서 적탄에 맞아 최대성의 뒤를 따라 역시 순절하였다.<sup>58)</sup>

안치전투의 결과는 훗날 그 전공이 일정하게 평가되어 1605년의 선무원종공신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낙안출신의 全邦朔에겐 선무원종 2등공신록권이 내려졌고, 최대성의 장자 언립과 3남 후립이 나란히 2등공신에 책록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안치혈전의 주장이었던 최대성에겐 공신록권이 돌아오지를 않았다. 어떤 연유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57) 『창절록』 「안우산상서」 및 『태고정집』 권1, 「상방백서」.

58) 문희순, 『태고정집』 권3, 「산양충의전」.

(2) 안치순절 이후 전공의 향방

임진왜란시의 군공을 공인받은 인물들은 1604년에 확정된 18인의 선무공신이나 이듬해 1605년에 책록된 선무원종공신 9,060인 가운데 들어있어야 했다. 따라서 홍양 침산전투에서 전사한 창의별장 송대립에겐 선무원종 1등공신이 녹훈되었다. 이순신 휘하에서 공을 세운 군관들 상당수가 선무원종 1등공신에 책록된 예로 보았을 때, 관군이 피해 달아난 안치들에서 적의 대군과 부딪혀 死節한 충의만으로도 그가 어디에 위치했어야 하는가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록 어디에서도 그가 제외된 까닭은 다름 아닌, 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서, 그가 전쟁을 피하여 도피한 위인으로 기록된 것 때문이었다.

관련기록이 『선조실록』 1598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려있는 이 문제는, 당시의 사헌부가 병조를 탄핵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큰 사건이었다.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두 건의 『선조실록』 기사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A]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통제사의 군관 玄應臣·尹思忠·陳夢日·吳大器·崔大晟 등이 도피한 公事를 取考하였더니, 병조가 지난해 10월에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여 각도에 공문을 발송하여 그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체포한 다음 이순신에게로 압송, 모두를 군율에 의해 처단하도록 啓下받아 行移하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잡아보내지 않았습니다. … (중략) 그런데 금년 1월에 와서는 그들의 죄가 지금으로서 는 반드시 확연하다고 할 수 없으니 그들을 잡아들여 국문한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해야겠다는 것으로 다시 아뢰므로써, 전쟁에 임해 도주했던 자들을 즉시 효시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극히 통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조의 당상과 색낭청을 모두 추고하소서. 그리고 종전의 공사대로 그들을 통제사 이순신에게 잡아보내 그 중 情犯이 더욱 심한 자를 골라내어

군률에 의거하여 처단케 하십시오.”<sup>59)</sup>

[B]

병조가 아뢰기를, “요즘 각진의 前後 장계에 기록된 도망한 군졸 중에 … 정범이 중한 자는 비밀리에 본도에 移文하여 모두 체포하여 본조에 압송하면, 이를 본진에 轉送함으로써 주장들로 하여금 각각 경중에 따라서 차례대로 科罪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범이 가장 무거운 자는 효시하여 군중을 징계시키기도 하고, 군률에 의하여 처단하라고 계하하신 것을 行移 하였습니다. 그런데 … 방어사 高彦伯의 장계 … 경상 좌병사 成允文의 장계… 및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서는, ‘주부 현응신이 어란 앞바다에서 전투가 벌여졌다는 기별을 듣고 밤을 타 도망갔으니 군률로 다스려 다른 군사들을 경계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이들 장계에 의거하여 각각 행이한 것이 무려 수십 번인데, 한 사람도 체포된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 장의 공문만으로는 외방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람을 뽑아 보내 잡아다가 국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sup>60)</sup>

[A]와 [B]의 기사가 약 2개월의 시차가 있는 가운데, [A]의 내용이 [B]의 내용보다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헌부의 계언은 정유년 10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결과를 놓고 훗날 병조를 공격한 내용이지만, 병조의 계언은 정유년 10월 이후의 조치과정과 함께 1598년 1월 이후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B]에 나오는 이순신의 장계내용은 [A]의 것과는 시점이 다른, 그 후에 조사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유년 10월, 통제사의 장계에서 지목된 5인이 모두 도피자였는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병조의 조사결과였다. [A]의 내용에서도 그 같은 기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사료 [B]에서 병조가 거명한 대로 현응신 1인만이 그 대상자였다고 하겠다.

59) 『선조실록』 권99, 31년 4월 갑술.

60) 위의 책, 31년 2월 갑자.



그런데 정유년 10월, 처음에 모의장 최대성이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 도피자로 기록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당시는 명량해전 직후로서 앞에서 본대로 전라도 전역은 침략군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 도로는 불통이었으며 지방행정은 마비상태에 놓였을 때였다. 따라서 중앙과 전라도의 소식이 오랫동안 끊어져 조정에서는 도내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였다.<sup>61)</sup> 특히 이 기간에 있어서 해남·강진으로부터 장흥·보성에 이르는 해안지방의 실상은 무정부상태의 혼란이 가중된 곳이었다. 또한 이때는 전국적으로 지방수령이나 무관들이 자신의 고을과 근무지를 버리고 도망하는 예가 비일비재하였으며, 관료들의 도피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군장수들 가운데 주장을 구원하지 않고 전선을 이끌고 도망해버린 경우에도 이들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sup>62)</sup> 이 같은 실정에서 엄격한 군율을 행사했던 통제사 이순신에게, 만일 정기적으로 군무를 보고하지 못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 처했을 때 도피자로 지목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하여, 1598년 2월 이후 최대성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전쟁을 피해 달아났다는 사실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임진년 이후 군관신분에서 일관해온 그의 의병활동과, 최후에는 관군이 기피한 안치전투를 주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爲國殉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선무원종공신록에 올라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것은 또 일시나마 이순신의 장계에서 도피자로 낙인 찍힌 것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공과 위국순절의 진실을 밝혀 忠臣旌閭가 세워지게 하는 것뿐이었다. 이를 위해 보성·홍양지

61) 『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무오.

62) 칠천량패전 이후 관료들의 도피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킨 예는 명량해전 전부터 이듬해까지 계속되고 있었으며(『선조실록』 선조 30년 8월 을유, 9월 임진, 12월 을유, 31년 정월 을미 등), 해전을 수행해야 할 수군장수들의 도망사태 역시 한두 가지 예가 아니었다(『선조실록』 30년 8월 병자, 31년 정월 정미 등).

역의 유림과 후손들에 의해 上書와 所志를 통한 소청운동이 전개되었다. 의병장의 전공회복을 위한 복권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전후 약 100년 간에 걸친 그들의 노력은 1648년 보성출신의 유학자 安邦俊(1573~1654)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그를 위시하여 34인의 사람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올린 상서문에 의하면, 그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의 呈狀이 올라갔음을 밝힌 것으로 보아,<sup>63)</sup> 처음 시작된 것은 1605년 『선무원종공신록 권』이 배포된 직후부터가 아니었을까 한다. 최대성의 전공이 묻혀버린 이 억울한 사건의 소청운동을 안방준이 주도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모의장 최대성의 본가와 가까운 보성읍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안치싸움이 있을 당시 26세의 지식인이었다. 또 그는 임진·정유재란을 현지에서 직접 겪었으며 난후에는 임진왜란사 저술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중에서도 충절의 사적을 밝히는 데 앞장선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저술한 「호남의록」은 호남출신 임란충절들의 사적을 정리한 유명한 기록으로서 현재 『은봉전서』에 전한다.

안방준의 호남의록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밝혀두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현재 『은봉전서』의 호남의록에는 16인의 충의사적이 수록된 가운데 보성출신의 蘇尙眞과 吳宥가 포함되어 있다. 『山陽誌』에는 보성군의 충신으로 소상진·오유·최대성의 세 인물이 기록되었으니, 그 중 최대성만이 「호남의록」에서 제외된 셈이다. 그러나 최대성의 『창절록』에는 「호남의록」속에 담겼던 '최대성 사적'이 그대로 전제되어 있고, 또 『창절록』의 서문을 쓴 河政益이 “내가 일찍이 安牛山 소찬의 「호남의록」과 李水使의 『임진일기』를 보니 공(최대성)의 사적이 뚜렷했다”<sup>64)</sup>라고 하였다. 안방준이 생전에 최대성의 소청운동에 앞장섰던 사실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사정이 개재되었는가에 대하여는

63) 소위 안방준의 무자년 상서에서, “生等屢度呈辭 已得轉關之題 而尙無褒旌之舉”(『彰節錄』(1772, 安心寺印), 「安牛山上書」)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64) 위의 책, 「募義將軍彰節錄」.

앞으로 좀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안방준의 문집인 『은봉전서』가 간행되는 과정에서 호남의록의 최대성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안방준의 소청운동 이후 모의장의 공적과 충절을 되찾기 위한 재지유림의 노력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최대성의 旌褒之擧를 위해 안방준의 뒤를 이어 소청운동을 계승한 인물은 그의 문인 文希舜(1597~1678)이었다. 1648년 스승과 함께 연명하여 상서에 참여했던 문희순은 4년 뒤인 1652년 이번에는 49인의 유림대표로서 다시 전라도 순찰사에게 최대성의 전공을 자세히 써올렸다. 이때 그는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교전일기를 통하여 안치전투에 대한 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순영에서는 이미 도내의 충효인물 10여 인을 보고해 올린 뒤라는 이유로 후임 순찰사와 논의하게 하였을 뿐이다.<sup>65)</sup>

안타까운 것은 당시의 실정에서,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재야유림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대성이 도피자의 한 사람으로 이순신의 장계에 올라 『선조실록』에 기록된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후손들은 물론, 재지유림의 경우에도 최대성이 억울하게 포상을 맞지 못한 이유가 곧 후손들이 잔열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sup>66)</sup> 이것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모의장 최대성의 전공회복을 위해 계속된 복권운동은 1648년 안방준을 중심으로 한 재지유림이 전라도 순찰사에게 올린 상서로부터 1751년 최대성의 5대손 최정기 등이 예조에 올린 所志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 계속되었다. 그 대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최대성의 旌褒·追崇을 위한 소청과정

시 기	유림 대표	상서·소지 내용	결 과	전 거	비 고
1648(인조 26). 11	보성유학 안방준 등(34인)	증직·정려, 啓聞 요청 (전라감사)	‘卽當啓聞’ 약속, 本官復戶 조치	상서 전문 (『창절록』 소개)	관련기록 (『은봉전서』, 『연보』)
1652(효종 3). 4	보성유학 문희순 등(49인)	정려·증직, 啓聞 요청 (전라감사)	후임 계문조치, 本官復戶·免難役 조치	상서 전문 (『태고정집』 소개)	
1702(숙종 28). 6	홍양 송석하 등 (27인)	정려·증직, 건의 청원 (전라감사)	依願 啓門 약속	상서 사실 (『창절록』 소개)	
1710(숙종 36). 12	보성유학 정진하 등(43인)	旌褒之擧, 巡營건의 요청 (보성군수)	巡營 牒呈 약속	상서 원문 (충절사 소장)	최대성·소상진·오유 3忠 褒獎, 건의
1749(영조 25). 3	홍양유학 최두정, 보성 최득기 등(3인)	증직·정표, 啓聞 청원 (전라감사)	본읍의 증빙건거 확인후 조치	소지 원문 (충절사 소장)	후손 所志
1750(영조 26). 2	홍양유학 유동휘 등(41인)	정려·증직, 순영요청 건의 (홍양현감)	순영 첩정 약속	상서 원문 (충절사 소장)	구 상서문, 첨부
1750(영조 26). 8	홍양유학 최정기	褒贈之典 청원 (국왕 영조)	9.15, 禮曹達下 (좌승지 成範錫 次知)	상언 전문 (『창절록』 소개)	후손 駕前上言
1751(영조 27). 5	홍양유학 최정기 등(8인)	駕前上言後, 조치 청원 (예조)	11.8, 禮曹回啓 (예조판서 이익 증)	소지 원문 (충절사 소장)	후손 所志

65) 위의 책, 「壬辰三月上書」의 제사.

66) 후손들의 소지에는 그들이 한미하고 잔열하기 때문임을 빠짐없이 기록하였기에 예거할 필요가 없거니와, 유림들의 상서에 나타난 한 예를 보면, “최공과 宋公大立은 함께 창의하여 동일하게 순절하였는데 송공은 施恩이 있었음에도 최공에겐 여전히 褒獎함이 없는 것을 모두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공의 자손들이 衰替·不振한 소치인지라 이 어찌 또한 심히 슬픈일이 아니리오”(1750년 2월, 홍양유학 유동휘 등 41인이 홍양 현감에게 올린 상서내용)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처음엔 보성·홍양지역 유림의 집단적인 상서로 시작되었던 소청운동이 1749년 이후에는 주로 홍양에 거주하던 모의장 후손들에 의해 소지를 통한 청원이 주류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1751년 5월 모의장 5대손 최정기의 駕前上言 이후 최대성의 정려와 증직의 실마리가 풀렸지만,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역시 오래전부터 쌓인 재지유림의 소청운동이었다. 이를 입



증하는 것은, 보성에 충신정려가 세워지기 직전 최대성의 공적을 입증하기 위해 보성군수가 조정에 올린 증빙물로서 <표 2>에 나타난 재지유림의 상서, 즉 1648년·1652년·1710년·1750년에 올린 呈狀들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림의 상서문들과 함께 증빙자료가 되었던 것이 안방준의 『호남의록』·『산양지』·이순신의 장계와 『난중일기』 등이었다.<sup>67)</sup>

이렇게 하여 100년도 넘게 계속된 모의장 최대성의 전공회복 운동은 영조 때에 와서야 빛을 보게 되었다. 안치싸움에서 순절한 후 154년만인 1752년(영조 28) 4월 29일의 일이었다. 이때 그의 향리 보성에 충신 정려의 명과 함께 증통정대부 형조참의의 증직교지가 내려진 것이다. 그 뒤 1768년(영조 44) 도내유림의 발의로, 정유재란시 안골포·가덕도 해전에서 전사한 보성군수 안홍국의 정충사에 배향되었다가, 현재는 그의 전적지 죽전들과 안치들 가까이에 자리잡은 충절사에 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 5. 맺 음 말

명량해전은 일본군의 재침시 조선수군이 칠천량해전에서 전패한 직후 거의 바닥난 전력으로 전세를 뒤집어 놓은 승첩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충격적인 패전 직후, 적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준 승리였기에 특히 대첩으로 평가된 해전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는 이 명량대첩의 반작용이 전라도 연해지역에 엄청난 보복공세를 불러온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일본군의 재침 자체가 호남지방을 철저히 공략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유년 9월 하순으로부터 이듬해 종전기까지 호남지방에서 자행된 침략군의 분풀이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되풀이 설명할 필요가 없거니와 그 반인륜적 만행과 그로 인한 현지의 참상은 세계전사에서

67) 『창절록』, 『보성군수서목』.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일본군의 분풀이 공세는 명량해전 직후 전라도 연해지역에 집중되었던 것이, 이듬해에는 전라좌수영 지역으로 옮겨와 침략공세를 격화시킨 양상이었다.

1598년 3월 이후 일본수군의 침략공세가 홍양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라좌수영 관내에 집중되었을 때, 우리가 본 것이 바로 모의장 최대성의 의병항전 사례였다. 당시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의병전투는 일본군의 점령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극한상황의 항전이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펼쳐진 의병항쟁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관군이 현지에 있으면서도 의병을 구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군으로 혈전 끝에 사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전공을 평가받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에서 본대로 안치전투의 전말과 당시의 관찬기록들을 검토하여 확인된 사실은 의병장이 의병활동 중 도피자로 지목된 공문서 때문이었다. 무정부상태하의 전시혼란기에 빚어진 어긋난 전쟁기록, 즉 수군통제사가 올린 단 한 차례의 장계 속에서 억울하게 쓰인 이름이 의병장의 죽음과 의병활동의 전부를 말살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100년을 넘기면서 계속된 재지유림과 후손들의 소청운동은 마침내 영조 때에 와서 빛을 보게 되었다. 모의장 최대성의 향리인 보성에 충신 정려가 세워지고 증직교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유년 이후 20여 회에 걸친 의병항전의 마지막 전장터였던 안치들, 여기에서 순절했던 최대성의 충의와 전공이 온전하게 되살아났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주장이었던 상전을 따라 함께 죽었던 두리동과 갑술 형제의 충절도 함께 복원되는 임진왜란사가 써졌으면 하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1. 19, 심사수정일 : 2009. 2. 25, 게재확정일 : 2009. 3. 24)

주제어 : 명량해전, 崔大晟, 안치전투, 의병활동, 선조실록, 募義將, 보성, 재지사림, 曳津, 安邦俊

<ABSTRACT>

Japanese Forces' Attack and Volunteer Corps' Resistance in the Southern Coast after the Naval Battle of *Myeong-ryang*  
- On Activities of *Choi Dae-seong* in Volunteer Corps and a Battle at *Anchi, Boseong* -

Jo, Won-r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to investigate that the Japanese Army executed attacks mainly on the coast of *Jeolla* Province. There were two retaliatory attacks made by them. After the naval battle of *Myeong-ryang*, the southwestern coast of *Jeolla* Province was chiefly attacked in the first battle, and the army made attacks mainly on their eastern coast in the second battle.

Second, this study is to reveal the activities of *Choi Dae-seong* in volunteer corps. His activities play an important role to reveal the truth of a battle at *Anchi, Boseong, Jeolla* Province.

Third, this study investigates why *Choi Dae-seong* was not honored although he, one of the soldiers in few of armies in the cause of justice, fought against Japanese soldiers even when government troops evaded fighting against the Japanese Army. It is found that Admiral of the Naval Forces, *Yi Sun-sin*, reported *Choi Dae-seong* as a runaway soldier in the fierce battle where it was hard to get any news through somebody.

Fourth, it is to investigate why his descendant and local scholars made request for reestablishing his impaired reputation and how they tried to correct a wrong record about him over one hundred years. At last, he

restored his honor and secured government position and was promoted by a government after his death. But it remains a problem that he is still described as a runaway soldier in *Seonjo-sillok* and that it can not be corrected.

That is, this study shows how significantly one wrong record has an effect on a history and people.

Key Words: Battle of *Myeong-ryang*, *Chae Dae-seong*, Battle of *Anchi*, The Activities of the Volunteer Corps, *Seonjo-sillok* (宣祖實錄), Commander of Volunteers, *Boseong*, Local Aristocratic Family, *Yejin*, *An Bang-jun*